광주의 촛불 "사회 개혁·적폐 청산"으로 옮겨붙었다

탄핵 후 첫 촛불집회…광주의 목소리 들어보니

세월호 유가족·보성 농민 등 비정상 정책 폐기 촉구

"헌재는 국민 뜻 받들라" 김제동·김부선 발언에 환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주 촛불은 '사회개혁'과 '적폐청산'으로 옮아붙었다.

'촛불 정치'로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시민들은 지난 10일 금남로에서 열린 7차 광주시국촛불대회에서 '촛불 항쟁' 완성을 위한 우리 사회 '미완의 과제 해결'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특히 세월호 진실 인양, 고(故) 백남기 농민 진실 규명,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노동 개악 폐기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민사회도 이날 각종 퍼포먼스와 서명운동 등으로 비정상적인 정책들의 폐기를 요구했고, 세월호 유가족, 노동계, 학부모들이 무대에 올라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고 허다윤 학생의 어머니 박은미씨의 발언은 광주 시민들을 울렸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꼬박 970일째 되는 날이었지만 박씨는 아직도 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박씨는 "내 시간은 2014년 4월16일 이후 멈췄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그 어둡고, 차가운 세월호 속에 우리 딸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아직도 갇혀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가 하루빨리 인양되어야만 한다.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가정에 가면 가족들에게 '옆에 있어서 고맙다'고 안아주고 격려해 주길 바란다"며 "아픈 일이 저희로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성 농민 고 백남기씨의 30년 지기 배삼태 전 가톨릭농민회장도 무대에 올랐다.

배 전 회장은 "쌀값이 30년 전 그대로인 현 상황에서 더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은 맨몸으로 물대포를 맞았다"며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고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세상, 농민이 농사짓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이어 "어제(9일) 탄핵 가결 소식을 듣고 축배를 들다 갑자기 1987년 6월 항쟁이 생각났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을 것이다"며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부역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대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은 '광주정신'을 강조했다. 광주 공무원노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청과 5개 구청에 '박근혜 즉각 퇴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 본부장은 "광주정신을 지키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노동 개악 폐기'를 위해 공무원 사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에 출연하는 배우 김부선씨도 소신 발언으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연예인 블랙리스트 1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친일·친미 정권이 기득권을 움켜쥔 지 70년이 지났다. 이들은 북풍 공작과 종북몰이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겁주며, 박근혜를 앞세워 지역 분열 정치를 해왔다"며 "남북 대화와 경제협력을 다시 하고 동서남북 좌우 모두 웃으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촛불 집회에 앞서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광주 시민을 만났다. 시민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김씨를 환영했고, '남행열차'를 부르며 광주 방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김씨는 "촛불이 일상으로 퍼졌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진보와 보수가 서로 협력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촛불이 이끌자"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 남북통일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대책위'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 0% 만들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고,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잘 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을 벌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김씨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낮엔 염전, 밤엔 촛불…금남로 뜨거운 촛불 이유 있었다

신안댁 최미선씨 열정 화제

주부 최미선(45)씨는 광주 금남로 촛불집회 주최 측도 인정하는 '특별한 손님'이다.

최씨는 지난 10월 29일 첫 촛불집회부터 지난 주말 열렸던 7차 촛불집회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광주집회에 참석한 개근생이다.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열정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평범한 축이지만, 최씨의 주거지가 신안군 지도면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씨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이면 오후 2~3시께 집을 나선다. 남들보다 한참 일찍 출발하는 이유는 집이 신안군 지도면에 있어서다. 평일에는 남편과 함께 염전 근로자로 일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광주로 향하는 일이 벌써 7주째다. 처음엔 남편과 두 자녀만 동반해 집회에 참여했는데, 횟수를 거듭하면서 마을 주민들도 미선씨 가족과 함께 주말이면 금남로를 찾고 있다.

"처음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집회엔 반드시 참여해야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어요. 이왕이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집회와 투쟁의 도시, 민주의 도시' 광주 금남로에서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에게는 '언론보도만 믿지 말고 현장으로 가보자, 금남로가 완전 축제장이다'고 말했더니 10명 넘게 따라 나섰고요. 먼길 달려왔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후회한 적 없고 되레 힘을 얻어갔습니다"

지난 6차 촛불집회 때는 신안 집에서 김장을 하다가 자칫 지각할까봐 배추 200포기 가운데 절반은 다음날로 미뤘을 정도로 열정이 뜨겁다.

10일 최미선(45·가운데)씨와 최씨의 남편 이종만(48·왼쪽)씨, 동네 주민 남상옥(58)씨가 동구 금남로 제7차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최씨가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피곤한 여정임에도 촛불집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이유는 자녀 교육과 자기 반성에서다. 집회에 함께 온 자녀에게는 "불의를 보면 당당히 맞서 싸워라, 여기 금남로에 모여든 수만개의 촛불처럼. 참지 말고 맘껏 분노해야한다, 행동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는 말을 항상 해줬다.

자기 반성도 그의 발길을 촛불집회 현장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 뉴스를 접하고선 처음엔 분노가 일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자신을 돌아봤다고 했다. 남편과 함께 염전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치와 세상에 무관심했던 자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마저 품게 됐다는 것이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촛불보다 더 뜨거운 가슴을 지닌 최미선씨 같은 분들이 매번 모여들고 있는 만큼 금남로 촛불은 대통령 퇴진 전까지는 꺼지고 싶어도 꺼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용왕님이 노하셨다, 즉각 구속하라"… 거문도 주민들 해상시위

촛불 섬지역 확산 추세

"용왕님이 노하셨다. 박근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린 지난 10일 여수에서 남서쪽으로 115㎞ 떨어진 거문도 주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 촉구 해상시위를 벌였다. 신안 흑산도 촛불집회와 가거도 횃불집회에 이어 여수 거문도까지, 촛불이 점차 섬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박근혜 퇴진 거문도 주민행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앞에서 어선 10척으로 해상시위를 진행했다. 개도 이후 첫 해상시위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어선들은 '박근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용왕님이 노하셨다 당장 퇴진하라' '헌재, 우리가 째려보고 있다' '새누리당 해체' 등 각종 글귀가 쓰인 깃발을 달고 1시간 가량 거문도 앞바다를 항해했다.

이날 거문도 해상시위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석자들에게 영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해상시위 이후 거문도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거문리 백도유람선 선착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돌산중학교 학생들의 시낭송, 거문도 주민의 자유발언, 구호 제창, 거문도 음악동호인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지난 10일 여수시 거문도 앞바다에서 거문도 주민들이 어선 10척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및 구속 수사' 촉구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 퇴진 거문도 주민행동본부' 제공〉

퇴진 촉구 현수막 철거 압력에…발끈한 공무원노조, 정부 비판 성명

쌍나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현수막을 광주시청과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청사에 내걸었다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철거 요구와 함께 징계 압박을 받은 공무원 노조가 위축되기는커녕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로 해 갈등이 커질 조짐.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전공노 광주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오후 2시 광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자치부를 비판하고 노조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부 구청장의 행태를 꼬집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

○…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지난 9일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징계 운운한 것도 모자라 직원 2명을 시청과 구청에 보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관련자 징계와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지만 빈손으로 되돌아갔다"면서 "공무원이 봉사해야할 대상은 온갖 비위 의혹을 뒤집어 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인 만큼 중간에 물러설 생각은 결코 없다. 행자부와 마찬가지로 교묘하게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일부 구청장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